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임은 잤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 임은 잤습니다.

푸른 산빛을 ㉠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잤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 지침을 돌려 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임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임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 경계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A]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줄 아는 까닭에 건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이부었습니다.

[B]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 다시 만날 것_을 믿습니다. 아아, 임은 잤지만 나는 임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 임의 침묵을 ㉩ 휩싸고_ 돕니다.

01

표현상 특징 · 객관식

윗글의 후반부에서 화자가 취하고 있는 지향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세속적인 욕망을 절제하며 존재의 근원을 탐구하려 한다.
- ② 이별의 고통을 수용하며 관계의 연속성을 회복하려 한다.
- ③ 과거의 기억을 정화하며 내면의 평정심을 유지하려 한다.
- ④ 운명적인 비극을 긍정하며 절대적 고독을 감내하려 한다.
- ⑤ 타인과의 거리를 조율하며 정서적 안정을 추구하려 한다.

02

내용 이해 · 객관식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옛 맹세'가 '티끌'이 된 것은 과거의 약속이 현재적 효력을 상실했음을 의미한다.
- ② '첫키스의 추억'은 화자의 삶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 ③ '향기로운 말소리'와 '꽃다운 얼굴'은 임의 부재를 더욱 감각적으로 부각하는 요소이다.
- ④ 화자가 슬픔을 희망으로 옮긴 것은 이별을 사랑의 완성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 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화자의 억눌린 감정이 분출되는 매개체이다.

03

어휘의 의미 · 객관식

밑줄 친 ㉠~㉨의 문맥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기존의 상태나 경계를 물리적으로 타파하여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함.
- ② ㉡: 사물의 상태나 진행 방향을 가리키거나 판단의 기준이 되는 지표.
- ③ ㉢: 옳지 않은 일이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조심하고 단속함.
- ④ ㉣: 사물의 현상이 비롯되는 근본적인 발생지 또는 감정의 발원지.
- ⑤ ㉤: 어떤 대상이나 현상을 빈틈없이 둘러싸거나 전체를 장악함.

04

밑줄 설명 · 객관식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치가 증대되는 속성을 지닌 매개체이다.
- ② ㉡: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비롯된 화자의 충격과 비탄을 형상화한다.
- ③ ㉢: 슬픔의 총량을 줄이기 위해 고안된 화자의 심리적 방어 기제이다.
- ④ ㉣: 이별의 원인을 화자 자신에게서 찾으려는 자아 성찰의 결과이다.
- ⑤ ㉤: 임의 거부 의사를 화자가 수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정서적 단절이다.

05

[보기] 종합 감상 · 객관식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불교의 '회자정리(會者定離) 거자필반(去者必返)'은 만난 자는 반드시 헤어지고, 떠난 자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순환적 세계관을 담고 있다. 한용운은 이러한 종교적 진리를 문학적 역설로 승화시킨다. 그는 이별을 단순한 상실로 보지 않고, 오히려 임의 '침묵'을 통해 임의 존재를 더욱 강렬하게 체험하는 계기로 삼는다. 여기서 '침묵'은 부재(不在)가 아니라, 가득 차 있는 충만함의 역설적 표현이 된다.

- ①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은 회자정리의 원리를 삶의 필연적 조건으로 수용한 결과겠군.
- ②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는' 태도는 거자필반의 논리를 통해 이별의 비극성을 극복하려는 의지겠군.
- ③ '임을 보내지 아니하였습시다'라는 진술은 물리적 이별을 부정함으로써 임과의 영적 합일을 지속하려는 역설이겠군.
- ④ '사랑의 노래'가 '임의 침묵'을 휩싸고 도는 것은 침묵 속에 내재된 임의 실재를 감각적으로 확인하려는 시도겠군.
- ⑤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에 들이붓는' 행위는 회자정리의 슬픔을 거자필반의 확신으로 치환하는 과정이겠군.

06

상징/소재 해석 · 객관식

윗글의 '임의 침묵'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의 간절한 부름에 대해 임이 보이고 있는 거부 의 몸짓이다.
- ② 이별의 원인이 화자에게 있음을 암시하는 임의 무언의 질책이다.
- ③ 현실적 이별의 상황을 상징하면서도 새로운 만남의 가능성을 품은 상태이다.
- ④ 화자가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서, 임과의 소통을 방해하는 절대적 장벽이다.
- ⑤ 임이 화자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을 대변하는 침묵이다.

07

화자 정서 변화 · 객관식

윗글 전체에서 화자의 정서 및 태도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별에 대한 경계 → 뜻밖의 이별로 인한 비탄 → 슬픔의 희망적 전이 → 재회에 대한 확신
- ② 임에 대한 원망 → 이별의 필연성 인정 → 고독의 내면화 → 절대자에 대한 귀의
- ③ 과거의 행복 추억 → 상실감으로 인한 절망 → 현실 도피적 환상 → 허무주의적 체념
- ④ 이별의 슬픔 → 임의 부재 확인 → 슬픔의 힘에 굴복 → 임에 대한 증오
- ⑤ 재회에 대한 갈망 → 이별의 고통 → 슬픔의 인내 → 운명에 대한 순응

08

서술상 특징 · 객관식

윗글의 마지막 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각적 심상을 청각적 심상으로 전이시켜 임의 부재를 강조하고 있다.
- ② 역설적 상황 설정을 통해 화자의 변함없는 사랑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③ 단정적 어조를 사용하여 임과의 이별이 영원함을 선언하고 있다.
- ④ 감탄사를 반복적으로 배치하여 격정적인 슬픔을 표출하고 있다.
- ⑤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의 외로운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09

개념 집중 분석 · 객관식

윗글의 '사랑'에 대한 화자의 인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간의 보편적인 일로서 이별의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 ② 슬픔이라는 감정적 에너지를 새로운 가치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동력이다.
- ③ 임의 침묵이라는 부정적 현실을 능동적으로 포용하게 만드는 근거이다.
- ④ 만남과 이별의 순환적 원리를 초월하여 영원한 결합을 완성하는 수단이다.
- ⑤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깨뜨려질 수 있는 가변적인 속성을 지닌 것이다.

10

내용 이해(조건) · 객관식

윗글에서 화자가 '임을 보내지 아니하였습시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별이 가져다준 뜻밖의 충격이 너무나 커서 현실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 ② 임과의 재회가 우주적 섭리에 의해 보장되어 있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 ③ 슬픔의 감정을 억제하지 않고 눈물의 원천으로 승화시키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 ④ 임의 침묵이 곧 임의 거절이 아니라 임의 깊은 배려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 ⑤ 과거의 맹세가 티끌이 되어 사라진 현실을 겸허히 수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11

전개/구성 · 객관식

[A]와 [B]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제시된 감정적 결단이 [B]에서 논리적 확신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 ② [A]의 개인적 고뇌가 [B]에 이르러 사회적 연대 의식으로 확장되고 있다.
- ③ [A]의 비관적 전망이 [B]의 낙관적 태도와 충돌하며 내적 갈등을 빚고 있다.
- ④ [A]에서 임의 부재를 수용하고, [B]에서 임의 존재를 부정하는 모순을 보인다.
- ⑤ [A]는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고, [B]는 미래의 상황을 가정하여 대비하고 있다.

12

[보기] 외적 준거 · 객관식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한용운의 시에서 '임'은 연인뿐만 아니라 '조국', '불성(佛性)', '진리' 등 다양한 상징성을 지닌다. 특히 식민지 시기라는 시대적 배경을 고려할 때, '임의 침묵'은 국권 상실의 암담한 현실을 의미한다. 그러나 화자는 이러한 현실에 절망하지 않고, 언젠가 회복될 국권에 대한 믿음을 '다시 만날 것'이라는 시어로 형상화하며 저항적 의지를 드러낸다.

- ①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간' 행위는 국권 상실의 비극적 상황을 암시하겠군.
- ② '차디찬 티끌이 된 옛 맹세'는 일제에 의해 훼손된 민족적 자존감과 약속을 상징하겠군.
- ③ '슬픔의 힘을 옮겨 새 희망에 들이붓는' 것은 절망적 현실을 독립을 위한 에너지로 승화하려는 노력이겠군.
- ④ '임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는 식민지 현실을 부정하고 이상 세계로 도피하려는 화자의 의지겠군.
- 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조국 광복을 염원하는 화자의 멈출 수 없는 열망을 표현한 것이겠군.

13

표현상 특징(역설) · 객관식

윗글의 '나는 향기로운 임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임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에 사용된 표현 기법과 그 효과가 가장 유사한 것은?

14

내용 이해(디테일) · 객관식

윗글의 시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푸른 산빛'과 '단풍나무 숲'은 계절의 변화를 통해 이별의 분위기를 조성한다.
- ② '황금의 꽃'은 임과 함께했던 과거의 찬란하고 견고했던 가치를 상징한다.
- ③ '날카로운 컷키스'는 임과의 만남이 화자에게 준 강렬하고 충격적인 기억이다.
- ④ '견잡할 수 없는 슬픔의 힘'은 화자가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감정의 과잉 상태를 의미한다.
- ⑤ '정수박이'는 슬픔을 희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화자가 도달한 가장 낮은 겸손의 자세를 상징한다.

15

종합적 이해 · 객관식

윗글의 화자가 궁극적으로 도달한 인식의 경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별의 고통을 인내함으로써 얻게 되는 도덕적 성숙의 단계
- ② 현실의 고통을 언어적 유희로 극복하려는 심미적 태도의 완성
- ③ 부재하는 임을 현존하는 존재로 치환하는 인식의 혁명적 전환
- ④ 떠난 임에 대한 그리움을 종교적 구복으로 해결하려는 신앙적 자세
- ⑤ 인간사의 덧없음을 깨닫고 자연의 섭리에 귀의하려는 무욕의 상태